

이웃사랑

완주마을이야기 89호 2022 제169호



2026년 9월호

물길 따라 정이 흐르는 봉동 대북마을

“북 많은 마을이라 대북”이라는 주민들의 웃음 서린 말처럼, 대북마을에는 물과 사람의 정이 흐른다. 가을배추를 심고 대파밭 풀을 매며 바쁜 계절을 보내면서도 함께 밥상을 나누는 대북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마을회관 뒤편에 모인 주민들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고 웃고 있다.

- 완주전통취타대를 아시나요 ... 8-9P
- 삶의풍경 원신마을 김금자 이야기 ... 10-11P
- 꿈의 극단&꿈의 무용단 ... 12-13P
- 그림책이 사람을 품는 비봉 그림책방' 꿈' ... 19P